

광주지역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 폭 전국 최고

국세청, 수도권·5대 광역시 기준시가 고시

지난해 보다 상가 2.7%·오피스텔 2.4% ↓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내년 적용될 광주지역의 상업용 건물(상가)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세청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광주·대전·대구·부산·울산)에 있는 일정 규모(3천㎡ 또는 100개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 4천810동, 41만호와 오피스텔 3천223동, 31만호 등 모두 72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양도소득 세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되며 취득·재산·등록서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분부터다.

광주지역의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고시대상은 177동 1만2천659호에 달했다. 이중 상업용 건물은 139동 8천 868호, 오피스텔은 38동 3천817호다.

기준시가의 조사기준일은 9월1일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다.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실질

80%, 대구 -0.76%, 부산 -0.13%, 울산 -1.78%를 기록했다. 또 오피스텔은 전국 평균 2.96% 상승했으며 서울 3.41%, 경기 3.93%, 울산 0.40% 상승했고, 대구 -0.59%, 부산 -0.12%로 하락했다.

광주지역 상업용 건물 가운데 동(棟) 평균 기준시가는 광주시 서구 양동 양동상가 나동이 204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 로진타워파크가 98만7천원으로 최고였다. 동평균 기준시가는 상가나 오피스텔의 동별 m'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한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실물경기 위축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면서 건물의 하락폭이 커졌다"면서 "기준시가는 오는 3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내년 1월 2~31일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재산정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지역 소매유통업체 '내년 더 어렵다'

광주상의 1분기 경기전망 조사... 고용 악화·소득 감소

내년도 1·4분기에는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상공회의소가 백화점과 대형 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 광주지역 1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09년도 1·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기준치=100)가 '71'로 나타났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의 본격화, 실물 자산가치 하락과 고용부진에 따른 소득증가세 둔화,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실질구매

력이 감소하고,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내년 체감경기가 얼어붙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응답업체 분포를 보면 경기가 지난 분기에서 비해 호전된다고 예상한 업체는 4.9%(전분기 28.6%), 악화된다고 예상한 업체는 34.3%(전분기 30.2%), 불변이라고 예상한 업체는 60.8%(전분기 41.3%)로 집계됐다.

소매업태별로는 수퍼마켓(66), 편의점(67), 대형마트(87) 등으로 나타났으며, 백화점(100)은 지난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전남도 '작지만 강한 中企' 세광조선 등 3개업체 선정

전남도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작지만 강한 도내 중소기업에 수여하는 '2008 전남중소기업대상'에 (주)세광조선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금상에는 (주)엠포엠, 은상에는 (주)금호HT, 동상에는 (주)캡포트 등이 뽑혔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기업은 조선, 소재화학, 첨단기술, 생물산업 등 전통 중소기

업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해당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들이다.

세광조선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공격적인 해외영업 활동을 펼쳐 최근 2년간 1만3천t급 화학운반선 13척을 건조해 9천 388만달러의 외화를 획득하는 등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기업은 조선, 소재화학, 첨단기술, 생물산업 등 전통 중소기

캠코,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저소득층 채무 재조정·전환대출 시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저소득층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채무 재조정과 전환대출 시행 등을 통한 신용회복지원에 나섰다.

28일 캠코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금융소외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재조정 및 전환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채무조정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돈을 빌려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다. 지원 대상자들은 이자와

전액 감면받고 원금은 8년 이내에 나눠 갚을 수 있다.

캠코는 또 대부업체 등에서 1천만 원 이하를 연 30% 이상의 고금리로 빌려 정상 상환하고 있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전환대출도 시행중이다. 대상자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연 19~21%의 은행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캠코는 내년 초부터 신용회복 지원 대상을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1577-9449. /최경기자 choice@kwangju.co.kr

미국산 쇠고기가 판매 개개 한달만에 전국적으로는 호주산과 한우 판매량을 제쳤지만 광주에서는 한우판매량의 30%에 그치는 등 지역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 3사가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3사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량은 모두 1천 276.1t(약 212만6천581근)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호주산 쇠고기 판매량은

1천128.2t으로 지난해에 비해 16~

전남도 '융·복합기술' 키운다

〈여러 기술 접목 신기술 창출〉

전문가 등 12명 위원회 구성... 미래성장산업 육성

조선·생물 등 전략산업과 융합... 산업구조 고도화

전남도가 세계적인 블루오션 영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융·복합기술'을 미래의 지역발전을 선도할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융·복합기술 기획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전남 융복합 기술 육성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남도의 융·복합기술 육성계획은 조선·생물 등 도내 전략산업과 신기술을 융합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헬스케어·의료·문화·관광산업의 복합화와 나노·바이오·신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개발에 집중돼 있다.

이를 통해 전남도는 융복합기술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내 대학연구센터 등과 신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 계획은 내년 1월말에 마무리돼 중앙부처의 공모·신규사업에 반영시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융복합 기술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발전사업으로 삼을 계획이다.

전남도는 현재 디지털콘텐츠협동연구센터(동신대), u-농업 IT융용연구센터(순천대), 친환경어

류형식 연구센터(전남대), u-IT연구소(광양 월드마린), 해양밸리메디ックス 기술개발센터(목포대) 등 IT융합연구센터를 지원·육성중이며 연구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이를 사업화할 예정이다.

이상면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융·복합 기술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육성시켜 기존 산업을 고부가 가치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미래의 잘사는 전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융·복합기술=한 기술에 다른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차세대 기술혁명은 IT, BT, NT 등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분야와의 상승적 결합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향후 융·복합기술이 전 세계 미래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기주 광주지방국세청장 퇴임



김기주 광주
방국세청장이 30
일 대회의식에서
명예퇴임식을 갖
고, 26년 동안 몸
담았던 세정 일
선에서 떠난다.

지난 4월 부임한 김 청장은 '섬기는 세정질전'을 위해 하루가 빠지 않고 현장을 누비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국민신뢰도 평가에서 2위, 국세청 자체 청렴도 측정에서 1위, 하반기 불복분야 납세자 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강릉이 고향인 김 청장은 지난 83년 행정사무관으로 국세청과 첫 인연을 맺었고, 지난 4월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선 맥 못춘 美 쇠고기

시판 재개 한달... 한우 판매량의 30% 그쳐

미국산 쇠고기가 판매 개개 한달만에 전국적으로는 호주산과 한우 판매량을 제쳤지만 광주에서는 한우판매량의 30%에 그치는 등 지역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 3사가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3사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량은 모두 1천 276.1t(약 212만6천581근)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광주지역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량이 호주산과는 비슷하지만 한우에 비해서는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판매개개 직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전국 상황과는 달리 기대 이하의 판매량을 보인데다 2주 이후부터는 판매량이 점차 줄어 초반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호주산 쇠고기 판매량은

1천128.2t으로 지난해에 비해 16~

17%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는 712.2t이 팔려 지난해에 비해 5% 가량 늘었고, 돼지고기 판매량도 3천515.5t으로 지난해에 비해 업체별로 20~35% 증가했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량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량은